



Timor Journal 12월호 마지막 호

동티모르팀의 12월

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2/30	12/31					1
VISA TRIP						
2	3 ←	4 →	5	6	7 →	8
	발리 도착! 우붓으로 이동	새벽시장 구경 우붓 거리 걷기 몽키 포레스트	쿠타로 이동		동티모르로 돌아왔어요	재외국민투표 바다로 놀러가요~
LOSPALOS						
9	10	11	12	13 ←	14 →	15 →
	다시 센터 출근!		11인분 도시락 준비~	Lospalos로 출발! 도착 후 교회 행사 관람	Kom Beach	
16	17	18	19	20	21	22
		크리스마스 카드 작업1	크리스마스 카드 작업2		Festa Natal 크리스마스 발표회	
YMCA Vacation						
23 ←	24	25	26	27	28	29 →
		Christmas DONA 생일			YMCA 청소년 축구팀 축구경기 관람	

동티모르 아띠소개



Natalia (김창숙): 티모르의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있다. 티모르 여신. 축구부 아이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항상 팀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듯. 자신에 대해 말 해달라고는 하는데... 흠... 뭐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다. 아이들에게 잘 웃어주고 정말 상냥하다. 또한 우리 팀을 조율해주는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다. 팀원을 한데 묶어주는 튼튼한 끈 역할을 하고 있다. 준기를 사냥하는 것이 취미다. 또 다른 취미는 과자 먹기. 이곳에 와서 크리스피 크래커라는 과자에 빠져있다. 가까이서 지켜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지켜보면 볼수록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지만 너무 빠져들면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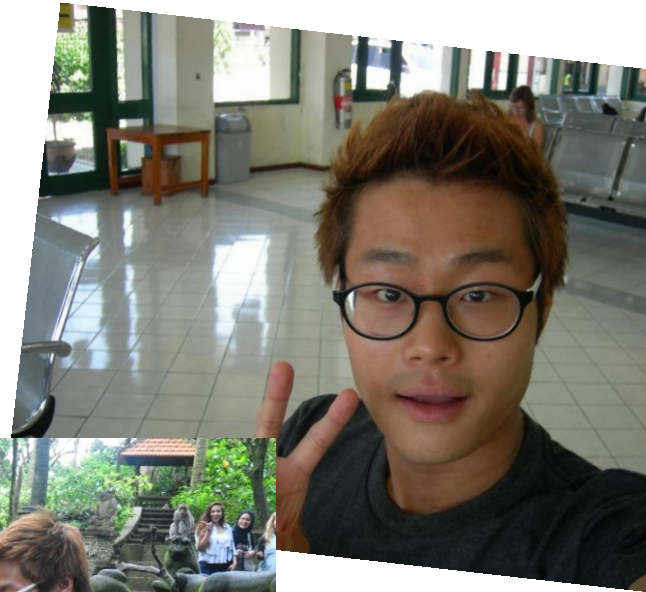
Gomez (김준기): 우리 팀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다. 신 메뉴 개발에 항상 힘쓰고 있으며, 아침밥을 준비해 준다. 우리 팀의 언제나 핫 이슈. 폭풍의 눈의 눈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에서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되어준다. 10월부터 12월까지 소진을 겪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있다. 심해까지 추락했다 이제서야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과할 때가 있다. 하지만 추진력에 비하면 가끔 이끄는 힘은 부족하다. 덩치는 산만한데 유리가슴을 가지고 있다. 별명은 유리남자. 취미는 땅굴파고 들어가기. 원래는 운동을 싫어하나 이곳에서는 운동 전도사.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총 16kg을 감량했다 아이들 공포증을 동티모르 와서 드디어 극복했다.





Dona (박다해): 취미는 마초(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사진보기, 엄마와 친구들에게 이메일 보내기. 방에 있을 때는 붙박이 가구처럼 이곳 저곳에 찰싹 달라붙어 누워있다. 가끔은 가구인지 헛갈릴 때가 있으므로 밟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당이 떨어질 때, 자다가 일어난 직후는 기분이 안 좋으므로 건들면 안 되니 팀원들이 조심해야 한다. 가끔 박도논(?) 모습을 보여줘 '박도나'라는 별명을 획득했다. 간식을 자주 보충해줘야 한다. 냉장고 요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밤에 몰래몰래 야식을 챙겨먹기 때문이다. 손목이 약해 후라이팬을 오래 들고있거나 커피를 볶으면 손목관절의 이상을 호소한다. 의외로 깔끔해서 청소와 정리를 잘 한다. 까칠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Afonso (최호진): 우리 팀에서 잔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말 많이 먹고 잘 먹는다. 이곳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으며. 농담도 잘 치고 장난도 잘 친다.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아 곳곳에서 '아폰소! 아폰소!'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곳에서 뽀네이루(게...게이!?) 라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취미는 남의 사진 확대해서 이상한 표정 보고 웃기. 어쩔 약간의 변태끼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밤마다 슈퍼미(라면)를 먹으며 허기를 달라고 있다. 초반 두달간은 총무를 맡았는데 꼼꼼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외로 준비성이 투철하며 까먹을까봐 항상 메모를 한다. 한편으론 되게 조심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다.



YMCA친구들과 떠난 소풍!



11월의 마지막 날 YMCA에서는 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 스텝, 라온아띠들이 모두 함께 소풍을 떠났어요. 소풍을 위해 아띠들은 7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10시까지 40인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전날 간장소스에 졸여놓은 닭을 덩혀놓고, 볶음국수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아침에만 아홉 번쯤 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밥을 담고 또 담고 결국 우리는 40인분이라는 도시락을 모두 포장할 수 있었어요.

여자 아띠친구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기 위해 센터로 먼저 떠났답니다. 남자 아띠친구들은 도시락을 들고 소풍장소로 바로 갔어요. 소풍장소는 독립기념박물관. 아이들과 아띠, 스텝들은 명찰을 차고 조별로 나눠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요. 박물관 안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아띠들과 함께 하며 동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사실 저희 아띠들도 이렇게 동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답니다. 몇 가지는 어렵듯이 듣고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박물관 방문을 통해 동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길고 긴 지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동티모르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제 한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동티모르의 식민지배 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1991년 산타크루즈 대학살의 날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학생, 시민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셨습니다. 1975년 11월 28일 동티모르는 450여년간의 포르투갈로부터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는 벗어났지만 동티모르의 아픔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침략 초반 4년간은 인구의 23퍼센트가 전쟁과 질병,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때 동티모르의 인구는 653,211명에서 498,433명으로 감소하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는 드디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 길고 긴 지배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티모르의 역사적 아픔은 현재진행형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배 당시 세워졌던 크리스투레이상이 딜리의 앞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민병대로 활동하며 같은 동포였던 동티모르 주민들을 죽였던 민병대원들은 서티모르에 남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에서 역사공부를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박물관의 전시물, 안내문의 언어가 포르투갈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언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테툼어는 아래쪽에 작게 번역되어 써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이갔던 스텝 Maun 줄리오에게 물어보니 공문서등에 쓰이는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 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밖에 쓰고 읽지 못하는 포르투갈어로 쓰여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동티모르에서 포르투갈어를 읽고 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모두 함께 '라르고 데 레시데레' 해변으로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조금 고생하며 도시락을 썼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 함께 YMCA트럭을 타고 센터로 돌아가는 것으로 11월 마지막 날 소풍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박물관을 가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즐거웠지만 다음에는 바다로 놀러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온아띠가 떠나기 전에 또 한번 소풍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by Gomez-

콩닥콩닥 발리

저희는 동티모르에 30일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60일을 연장해요. 이렇게 총 체류기간 90일이 지나면 타 국가를 찍고 들어와야 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2012년 12월 3~7일 제일 가까운 그리고 신희여행지로 각광 받는 Indonasia-bali로 4박 5일 간의 비자 연장을 다녀왔어요.

안전문제와 볼 거리들이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아 한정 장소만을 돌아다녔던 동티모르에서의 3개월은 발리로 향하는 저희 팀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했지요.



여행은 팀원들 간 상의를 통하여 ubud과 kuta를 사이 좋게 2일로 나누기로 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 총장님의 차를 얻어 타고 공항에 도착하여 인도네시아 항공사인 merpati의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향했어요.



그러나... 동티모르와 같은 기후인 인도네시아 역시 우기가 시작 되어서 비행기가 발리에 도착할 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발리에 도착해서는 비를 맞게 되었어요.-_-;;; 그래도 폭우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속을 맞히고 공항택시를 이용하여 1시간 30분이 걸려 발리의 내륙지방인 우붓으로 향하였는데 새색시 같이 수줍은색의 노을과 주룩주룩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우붓의 풍경은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올 듯한 숲으로 둘러 쌓여 있었고 상큼한 풀 내음을 풍겼지요.

체크인을 하고 둘러본 우붓의 거리와 숙소는 정말 천국이었지요. 6시가 넘어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거리에는 귀여운 로드샵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들이 거리를 만들고 있었고, 숙소에는 빵빵한 wifi와 깨끗한 수영장이 짜잔~~~ 저희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덧붙이면 새벽에는 피자를 시켜 놓고 수영장에서 신나게 수영을 했었는데 수영장의 깊이는 1.5m... 제 키는 153cm-_-;;; 하하히히 흥 목숨 걸고 놀았었지요



우붓에서는 무엇을 보았느냐구요?
몽키프레스트, 새벽시장, 시아렌왕궁
등을 보았지요!

발리 우붓지역의 여행 추천장소를
말해 드릴게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촬영 장소이기도 했던
연인들의 천국 우붓~~~ 관광지로 너무
개발 된 것이 약간의 단점이지만
아름다운 경치가 최고!!! 그리고 우붓에
가게 된다면 꼭!꼭! 하바라의 쿠바풍의
카페에 가보시길. 분위기와 밴드공연
그리고 마지막 공연의 라인댄스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꺼예요.



그렇게 재미있는 우붓에서 시간을
뒤로하고 약 2시간이 걸려서 택시를 타고
꾸따로~~~ 뽕!

우붓이 상큼한 풀 내음을 풍기는 시골
이었다면 공항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꾸따는
서퍼들의 천국인 시가지였어요. 골목골목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넘쳐났고, 해변에는
일은 오후부터 서퍼들과 장사꾼들이
속속들이 자리를 폈지요. 앗! 꾸따는 도로가
일방통행이라는 신기한 사실!!

마치 한국과 같이 밤이 되면 조명이
반짝거리는 꾸따에서 저희는 늦은 아침에
일어나 해변을 거닐고, 저녁에는 저희들만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담고 있었던 마음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꾸따에서 2일도 쏘살같이 지나 동티모르로 돌아가야하는 날이 다가왔지요.

발리공항은 발리의 중심지인 꾸따에서 택시로 15-20분 거리였고, 저희는 교통체증을 염려하여 11시 20분에 출발하는 동티모르행 비행기를 타려고 2시간 전 택시에 올랐지요.

그 때까지는 이 것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다고 생각하였고 심지어 저는 공항 커피숍에서 차를 마셔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니까요.



출발 5분이 지났을까요? 차는 엉금엉금 느리게 가기 시작하였고 비행기 출발시간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였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보니 전통퍼레이드가 딱! 그 때 진행되고 있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 뭐예요. ㅎㅎㅎ 30분... 또 1시간이 지나자 저희는 택시 안에서 프랜a,b를 논의하며 여권을 모아 한 사람이 달려가 수속을 진행하고, 액체류를 모두 버리고 배낭과 캐리어를 들고 바로 타자! 또 가서 아저씨들에게 사정해보자... 간사님들에게 비행기 놓쳤다는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긴박하게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게 된 시간이 비행기 이륙을 30분 남겨 둔 10시 50분!! 실낱 같은 희망에 기대어 캐리어와 배낭을 들고 몇 년 만에 달리기를 하였어요. 다행이 좋은 직원아저씨 덕분에 수화물로 짐도 다 붙이고 티모르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서늘한 바람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 로스팔로스로 오세요!

(부제: 엉덩이에 각인된 기억)

맨 처음 로스팔로스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외쳤다. 까오! 이곳에 온지 세 달 반 드디어 다른 지역에 처음으로 방문하는구나! 가는데 무려 8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까이꺼 타 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다. ‘로스팔로스’ 왠지 듣기만 했는데도 싱그러운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8시간은 결코 장난이 아닌 시간이었다. 하지만 로스팔로스 그 너머에 있는 자코 아일랜드를 간다는 이야기에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기는 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소풍때 처럼 또 한번 도시락을 싸다. 이번엔 15인분 정도? 하지만 지난번보다 손이 조금 더 갔다. 메뉴가 조금 달라졌고 추가가 되었다. 거기다가 샌드위치까지! 그래도 열심히 나물도 볶고 미고랭(볶음국수)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만들었다. 오 마이 갓. 출발 아침 트럭에 타고 가기로 한 인원은 12명이 되었다. 세상에! 앞에만 5명이 타도 트럭 뒤 짐칸에는 7명이나 타야 했다. 그러나 복잡복잡 사람 많은 여행이 조금 설레기는 했다.



아침부터 트럭은 달리고 달려 로스팔로스로 향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트럭 짐칸에 걸터 앉아가는 것은 좋았으나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했다. 그래도 즐거웠다. 새로운 동티모르 친구들도 알게 되었고 가는 동안 많~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로스팔로스로 가는 길은 고개 고개, 굽이 굽이마다 새로웠다. 사실 멀리 밖 한 시간거리도 가본적이 없던 나에게 로스팔로스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왔다. 달리는 수도인지라 뭔가 조금 삭막하고 건조한 느낌이었는데 달리를 벗어나 30분만 더 달리고 산 고개하나를 넘기 시작하면서 부터 달리와는 다른 풍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울창한 숲, 곳곳에 있는 시골 마을들, 멀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야생화와 식물들, 주요 도시를 통과해가며 느꼈던 달리와는 다른 복잡거림. 모든 풍경들이 신선했다. 중간에 비가 몇 번 내려 비를 맞으며 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시원하고 기분좋았다. 물론 엉덩이는 점점 아파왔다. 멀리 밖의 길들은 10분이라도 제대로 달릴 수 없을 만큼 군데군데가 파여있고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아직도 로스팔로스 가는 길의 덜컹거림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로스팔로스에 진입했다. 분명 아침에 출발했는데 도착하고나니 해가 누엣누엣 지려 하고 있었다. 그래도 노을진 로스팔로스의 첫 인상은 너무 좋았다. 해발고도가 높아 공기 자체가 달리와는 달리 서늘했다. 우기라 약간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선선하게 그러나 기분 좋게 우리를 감쌌다. 예전에 갔던 몽골의 초원의 저녁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로스팔로스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 교회의 전국 연합 수련회 비슷한 것에 방문했다. 미리 가있던 Maun 줄리오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우리보다 빨리 새벽 4시에 출발하셨다고 했다. 오 마이 갓. 그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온 청소년들이 준비해 온 교회 공연을 보고 함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물론 종교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구경만 해도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와 함께 트럭을 타고 왔던 청소년들은 수련회에 참가하고 라온아띠 일행과 총장님은 총장님 가족의 집에 초대받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여기 온 지 세달 반 동티모르 주민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먹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곳 어머니께서 고기요리를 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싹싹 긁어 먹었다. 특히 아이마나스(이곳 양념인데 매우 맵다. 토마토, 고추 양파 등을 넣고 뭉근하게 끓인 소스)가 일품이라 그 집에 있는 아이마나스를 싹싹 긁어 먹었다. 우물물을 길러 아띠들이 설거지를 하고 인사를 드린 뒤 라온아띠와 간사님은 지구촌 나눔 운동(GCS) 로스팔로스 본부를 찾아가 잠을 잤다. 그곳에는 지구촌 나눔 운동에서 파견되신 한국인 간사님 세 분께서 생활하고 계셨다. 이곳의 도서관도 직접 관리하시고, 가축은행, 리어카은행 등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마치고, 홀로 별을 보러 나왔다. 알알이 하늘에 박힌 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 달도 뜨지않고 구름도 없어 정말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본 로스팔로스의 하늘엔 은하수가 머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





다음날은 꿈에도 그리던 자코아일랜드!! 동티모르에 왔다면 꼭 방문해 보아야 한다는 그 자코아일랜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다던 그 자코아일랜드. 해변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끼고 보기만 해도 산호와 물고기들이 춤을춘다던 그 자코아일랜드를 가기로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자코섬을 가려면 투투알라라는 지역을 거쳐 작은 쪽배를 타고 20분정도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관문인 투투알라 지역에서 독립영웅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하느라 차량 진입이 불가능 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의 해변으로 가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내 적응하고 함께 갔던 동티모르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나중에 돌아올때는 다들 햇볕아래서 너무 신나게 놀아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다. 로스팔로스로 돌아와 또 다시 총장님 가족의 집에 방문해 그날 해변을 가다 산 물고기로 튀김과 탕 요리를 먹었다. 동티모르의 음식들은 입에 잘 맞아 큰일이었다.(물론 나의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배불리 저녁을 먹고 우리는 다시 지구촌 나눔 운동 간사님들의 숙소에서 하룻밤 더 신세를 졌다.

원래 예정은 자코 아일랜드 1박2일이 포함된 4일 일정이었지만 지역축제와 행사 문제로 하루 일찍 돌아와야 했다. 아침에 총장님의 로스팔로스택에 방문했다. 함께 갔던 친구인 멜시가 집 뒷산에 있는 야자를 따다줬다. 정말이다. 집 뒤뜰로 30초만 걸어나가니 야자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렇게 달디단 야자수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딜리에서도 야자수를 사서 나눠 마셨던 적이 있는데 차원이 달랐다. 뭔가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달짝지근하면서도 감칠맛이 났다. 절대 설탕이랑은 다른 그런 종류의 단맛이었다. 야자수를 다 마시자 그곳 어르신께서 야자를 반으로 갈라주시고 야자 껍데기를 까서 수저를 만들어 주셨다. 속을 파먹어봤는데 속살 또한 쫄깃하고 달콤했다. 아침을 먹지 않았었는데 야자수를 마시고 속을 파먹으니 너무너무 배가 불렀다. 야자를 다 먹고 로스팔로스가 집인 친구는 그곳에 머무르고 교회 행사인 친구들은 행사가 덜 끝나 올 때와는 달리 8명이 트럭을 타고 딜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지만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찬찬히 또 8시간이 걸려 딜리에 도착했다. 한국처럼 길이 잘 닦여있지 않고 제대로 앉아서 오지도 못했지만 너무 즐겁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동티모르의 다른 풍광들, 우리를 감싸 안던 로스팔로스의 시원한 바람과 트럭을 타고 오가느라 이틀 후까지 육신거렸던 엉덩이, 그렇게 로스팔로스 방문은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예수님 탄신 기념 특별 쏘인트 공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인 수녀님이 계시는 Santa Rafaela 성당과 함께 말이죠.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센터 근처에 있는 Rai Kotu 예배당에서 진행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성당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관객이 되어주셨습니다. 공연은 기도와 촛불의식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극과 아이들이 준비한 전통 춤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여드리고 마을 이장님의 말씀으로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통 춤은 성당 아이들이 준비했습니다. 티모르 전통 의상을 예쁘게 차려 입고 아름다운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애큐메니컬 시간에 배운 노래 중에서 두 곡을 골라 아름다운 손짓과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끝으로 연극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간식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공연이 있기 3주쯤 전부터 아이들은 열심히 연극 연습을 했습니다. 3주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했지요. 가끔은 아이들이 힘들었는지 많이 모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연습을 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있던 세번째 주에는 옷과 다른 소품들을 다 착용하고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준기 단원은 연극에서 쓸 노래를 틀어주는 음악감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공연을 통해 공연 보는 사람들도, 공연하는 사람들도 하하호호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새해 초 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연 준비한 아이들 그리고 관객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새해 보냈기를 바랍니다.

-by Afonso-

아이들이 열심히 연극과 노래, 춤 등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 라온아띠는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색지에 크리스마스 그림과 짧은 문구를 붙여 준비했습니다. 특히 스탭 분들과 함께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라온아띠에게는 스탭 분들과 함께 하는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카드 수가 300개 정도?로 워낙 많았고, 공연이 있던 그 주에 준비하게 되어 시간도 많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크리스마스 그림과 문구를 프린트로 출력해야 했습니다.



전설은 시작되었다! FC YMCA의 첫 원정경기 에르메라팀 격파

때는 바야흐로 2012년 12월 28일 자랑스런 우리의 FC YMCA의 동티모르 지역순회 첫 번째 경기인 '대 에르메라'전이 열리던 날이었다. 이른 아침 커피자루를 실어 나르던 트럭이 우리가 사는 아이무린에 도착했다. 오늘만큼은 축구 선수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 줄 소중한 트럭이다. 트럭은 라온아씨의 숙소인 아이무린을 거쳐 감독님이자 YMCA 센터장 이신 'Maun 제로'의 집을 거쳐 감독님과 선수들, 간식거리를 싣고 축구팀의 자원봉사자인 프란스의 집으로 가 선수들과 오늘 함께 구경을 갈 친구들을 데리고 YMCA로 향했다. YMCA에서 승리를 위한 장비를 챙기고 드디어 에르메라로 향했다.

다른 지역인 에르메라로 가는 길을 결코 녹록치 않았다. 산지가 대부분인 동티모르의 지형 때문에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또 넘어야 에르메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트럭 뒤에 앉아 8시간이나 걸려 로스팔로스도 가지 않았던가!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에르메라 정도는 동네 마실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FC YMCA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트럭을 운전하는 Maun 에두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스트 드라이버 였으며, 우리는 FC YMCA 였으니깐! 그렇게 두 시간여를 달려 후텁지근하고 찝통 같았던 덜리와는 확연히 공기가 다른 산골 분지의 '에르메라'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트럭을 타고 에르메라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고개를 넘으며 내려다봤던 에르메라는 구름에 뒤덮여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였다. 시원한 공기와 쾌적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왔다. 왠지 느낌이 좋았다.

축구 시합으로 예정된 시간은 오후 4시. 우리가 도착했던 시간은 정오... 시간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에르메라의 청소년 센터로 가 밥을 먹었다. 밥을 기다리는 한 시간 남짓, 거친 비포장도로에 아주 정말 아~주 조금 치렀던 우리는 이곳 저곳에 앉아 낮잠을 즐겨줬다. 왜냐하면 적당한 휴식은 스포츠맨에게 아주 중요했으므로. 마침내 밥이 나오고, 아띠들은 선수들이 배고플까봐 밥을 조금 먹었는데...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정말 엄청나게 먹어댔다. 정말 엄청~참나게! 다들 고봉으로 밥을 쌓아먹어 결국은 밥이 부족해 한번 더 요리를 해야만 했었다. 그래 난 너희를 이해할 수 있다. 너희들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청춘들이니까.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온 새로운 축구 유니폼과 양말을 갖춰 입었다. 오오 역시 옷이 날개다. 다 함께 옷을 맞춰 입자 마치 동티모르 국가대표팀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 그들은 멋있고 늠름해 보였다. 자 그래! 이제는 드디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상대팀과 한판 멋지게 붙어볼 시간이다. 다 함께 사진을 찍고, 멋진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손을 맞잡은 뒤 주심의 힘찬 호각소리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전반 40분, 후반 40분의 플타임 경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지면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내 손가락이 아플 것 같다. 짧게 요약하자면 FC YMCA의 움직임은 마치 늪지대의 제왕 악어를 보는 듯 했다. 크로커 다일!!! 쿠와앙!! 빠르고 날카로우나 결코 가볍지 않은, 한번 목표한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기필코 사냥에 성공하는 악어처럼 FC YMCA 공격은 상대의 골문을 집요하게 노렸으며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과는 사대 빵! 상대팀의 샷은 결코 우리의 야신이 막고 있는 골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 4:0 이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이 경기는 일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사실 3:0 정도가 되자 '이러다 열받은 에르메라 주민들이 우리에게 훌리건 짓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스쳐가긴 했으나, 다행이도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피쓰!

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2012년 12월 28일 '대 에르메라전'의 스코어는 4:0이라는 점수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었다. 원정경기과 2시간 비포장도로를 트럭을 타고왔다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렇게 승리를 기록했다. 그렇게 FC YMCA의 동티모르 싸커 투어는 기분 좋은 승풍을 맞으며 출발하고 있었다. 기다려라 다음은 바우카우, 사메, 로스팔로스다!

-by Gomez-



힘들때 먹으면 힘나는! 티모르의 길거리음식 사때!

티모르에서 지내는 아띠들이 힘들고 지칠 때 찾는 음식, 찾고 싶어지는 음식! 티모르의 얼마 안되는 외식거리, 간식거리! 이곳에선 '사때' 라고 부른다. 사때는 쉽게 말하자면 바비큐 꼬치구이 라고 할 수 있다. 티모르에 온다면 길거리 곳곳에서 사때를 굽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5시를 전후로 영업을 개시하는 듯 하다. 사때를 굽는 시간 거리를 거닐다 보면 사때를 굽는 냄새에 군침을 삼키게 된다.

사때는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많이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닭으로 만든 '사때 마누'. 닭을 각자의 비법이 담긴 소스에 적셔 불위에 굽는다. 간혹 가다 소고기로 만든 사때도 찾아볼 수 있다. 아띠들이 자주찾는 아띠들의 집 앞에 있는 사때 포장마차에서는 소고기로 만든 '사때 카라우'도 팔고 있다. 우리의 단골집 2주에 한 번은 꼭 찾아서 기운을 얻고 가는 식당에서는 염소로 만든 '사때 비비'가 있다.

특히 이 염소로 만든 '사때 비비'는 스테미너를 보강하는데 특히 좋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보양식 짬으로 여기는 듯 하다.

사때의 가격은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닭으로 만든 사때 기준으로 25센트! 크기와 부위가 다양하니 좋아하는 부위에 따라 다른 것보다 조금 큰 사때를 고르는 눈썰미도 필요하다. 티모르의 국민 간식으로, 때로는 보양식으로 먹는 사때. 티모르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쯤 꼭 드셔보시길!

-by Gomez-



아띠 끌라쎬의 예전을 돌아보고 남은 한 달을 고민해 본다.

동티모르에서 보내게 될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다. 더불어 우리가 아띠 끌라쎬를 진행하게 될 시간 역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아띠 끌라쎬를 돌아보려고 한다.

9월 24일 아띠 끌라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주 진행자가 되어 맡은 수업은 9월 27일 목요일 프로그램인 미술 교실. 아띠 끌라쎬 초반인 9월과 10월을 돌아다보면, 참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거나, 내가 알려준 것과 다르게 하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놀면서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서도, 막상 실전에서는 인상 쓰고 쉽게 화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그냥 포기해 버리기까지 했다. 정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했다. 내가 웃지 않고 즐겁지 않으니, 아이들이 웃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

11월 즈음부터는 그런 점을 고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한두 번 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월 역시 우리는 비자 트립이다, 로스 팔로스 방문이다 해서 아띠 끌라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느라 아띠 끌라쎬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여유가 얼마나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중간평가 이후로 아띠 끌라쎬가 조금 바뀌었고, 나는 기존에 맡았던 종이 접기 수업이 아니라 한국어 교실을 맡게 되었다. 한국어 교실 2차, 3차 홍보를 한 영향 때문인지 초반에는 수강생이 9명까지 왔었다. 그리고 수업이 계속 되면서 지금은 두 분만이 수업에 참여해주시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보다는 집중도 잘 해주셔서 진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설명하기에는 내 떼뚱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수강생 두 분 모두 내 부족한 설명을 잘 이해해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수업을 준비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힘이 나고 즐겁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한 수강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가고 9기가 와도 이 한국어 교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선 9기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꼭 얘기하겠노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약속을 너무 쉽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도 된다. 다음 한국어 교실 시간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꼭 해 드려야겠다.

앞으로 남은 한 달. 그 한 달 동안 그 두 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와주셨던 만큼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항상 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아띠 끌라쎬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할 것이다. 아띠 끌라쎬를 처음 생각했던 그 방향, 즐겁게 그리고 놀면서 진행하자는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by 최호진-

아띠클라세

5기수를 건너뛰고 동티모르에 오게 된 8기 티모르팀의 단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들의 장점을 한 가지씩 살려 개설하였던 atti klase.

총 16주를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수정했지요.

처음 경험하는 환경에서 오는 한계들 그리고 조금은 무기력함 속에서 팀과 개인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4개월을 지냈지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수업에 항상 출석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남은 기간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by 박다해-



우여곡절 아띠클라세

라운아띠 동티모르팀의 가장 핵심활동이자 거의 우리의 전부였던 아띠클라세. 하는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다. 나를 거쳐갔던 한국어 수업, 지금 내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과학교실과 YMCA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수업까지. 아참 간간히 댄스교실도 진행했던 것 같다. 이렇게 늘어놓으니 뭔가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는데 사실은 몹시도 여유로웠다. 한 때는 너무 여유로운 나머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동티모르 스타일에 다 적응이 된 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때로는 너무 요 스타일에 젖어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지난 네 달간 수업 횟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보니 동티모르팀에서 가장 많은 수업을 맡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적었다는 것 사실은 조금 편했을지도!?) 센터 활동 초반에 한국어 수업을 의욕적으로 맡았을 때는 참 기세 등등했었는데. 한 두명 오던 학생이 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나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대한 실망, 어찌 할 수 없는 무력감, 알 수 없는 분노까지! 어찌면 이때부터 나는 굴을 파는 습성을 갖추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아주 아~주 많이 여유롭다. 그땐 왜 그랬나 싶기도 하다. (근데 그때는 진짜 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맡았던 수업이 그것 뿐이라 심각하긴 했던 것 같다.)

중간평가가 지나고 변동이 있고 나서부터 스태프들의 컴퓨터 수업을 일 주일에 한 번 하고 과학을 일 주일에 한 두 번씩 진행하고 있다.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아이들은 파도처럼 센터에 왔다 파도처럼 빠져나간다. 사람이 너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조금하지도 않다. 하하하! 가끔 진행하는 수업이지만 아이들과 실험을 할 때 즐겁다!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실험을 보는 아이들이란! (살짝 과장이 섞여있다.) 함께 만든 실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뭔가 흐뭇한 것이 기분이 몹시 좋다. 같이 만들고 웃고, 이제서야 그런 행복을 조금 깨달다니... 아쉽기도 하다. 가끔 재미있는 부분만 하고 나서 어디론가 쏙 사라지는 친구들이 살짜쿵 야속하지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랴! 그냥 너희들이 즐거우면 됐지 싶다. 그냥 남은 기간도 이렇게 조금 더 즐겁게 친구들과 놀다가면 그것보다 좋은게 있을까?

-by 김준가-



아띠끌라세를 돌아보며

처음 아이들에게 '곰 세마리'를 번역해서 알려줬을때가 생각이 난다. 떼뚱어는 잘 모르지만 노래로 아이들과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짜투리 시간에 잠깐 노래를 알려 준 거라 atti klase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과 나의 인연을 그렇게 시작 되었다.

어느새 4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정리하는 글을 쓰다니 어색하기 따로 없다. 정해진 일정대로 항상 수업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나도 매일매일이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다. 어느날은 마이크를 타고 가다가 생각난 아이디어로 그날 수업을 진행했을때도 있고, 어떤 날은 계속된 고민으로 수업을 준비했을 때도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수업준비를 무척 게을리 했었다.

Atti Klase는 즐거울 때도, 화가날 때도, 지루할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리코더가 신기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했었지만 나중에는 흥미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잘 오지 않는 슬럼프도 겪었지만 요샌 다시 아이들이 오고있다. 이제는 정말로 리코더를 어떻게 불면 소리가 예쁘게 나고 음을 내어 곡을 연주하는 재미를 붙인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센터에서 atti klase를 진행하면서 힘들었점이 있다면 너무 유동적이었던 것이다. 어제 왔던 아이가 오늘 온다는 기약이 없어서 어느날에는 아이들이 많았다가 어느날은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갑자기 센터에서 일이 잡혀서 계획이 변동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 atti klase는 오지 않더라도 와서 인사하고 가는 친구들도 많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동한 적도 많았다.

앞으로 정말 1달 남았는데, 이번의 반성을 토대로 좀 더 후회하지 않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겠다.

-by 김창숙-



벌써 네달이 지나갔다니!!

항상 진지빠는 무거운 글만 쓰는 나. 마지막 '티모르 조르날'에서도 이런 글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구나. 12월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11월 막바지의 소풍부터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발리로의 비자트립, 처음으로 딜리 밖 로스팔로스도 가보고 뭔가 정신 없었던 센터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참여했고 축구부와 함께 에르메라도 갔다왔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낀 긴긴 휴가까지. 적다 보니 이것저것 한 것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여유로웠던 12월을 보낸 것 같다.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행동반경의 제약 때문에 조금 답답했던 것도 풀렸다. 무엇보다도 12월이 지나고 1월을 맞으며 무언가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것 같다.

주위의 진단으로는 소진 종합환자였던 동티모르의 나. 12월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냥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었을까? 시간 뿐만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뿐이다. 나는 왜 그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까? 사실 그런 마음들을 먹었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까? 지금은 그냥 다 그냥 그렇구나 싶다. 바로 무언가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보고서 그땐 저래서 그랬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고서에 굳이 일기장에 쓸만한 글을 남기게 되나 보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훗날 지금을 돌아보며 내가 그땐 그랬구나 하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남아있는 페이지가 아쉬운 책 처럼 떠날 날이 가까워 질수록 마음이 아릿 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한다. 언제 떠나냐고, 이제 곧 집에 가겠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4주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문득 문득 '이별'이라는 말이 떠오르려고 한다. 아직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아직 너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 진다. 누군가 에게는 전부 일 수도 있는 한 달. 나에게서는 남은 시간이다.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5개월이라는 시간은 참 크고 소중한구나 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라온아띠로 살았던 이 시간을 되돌아 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그리고 내가 만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게 좀 더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기억하자 지난 네달의 기억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한 달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 순간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린 나의 행복들,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 여기 있는 남은 시간 동안 모르는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지 않게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지.

-by 김준가-



12월의 마음

이번달은 쉬는날이 유독 많았던 한 달이었다. 지난 4달동안의 휴가를 몰아서 받는 느낌?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발리도 가보고, 처음으로 딜리를 떠나서 로스팔로스로 가는 행운을 얻었다. 언제나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들을 관찰하면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다.

휴가를 즐기면서 여유도 갖게 되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다.

처음으로 외국에서 새해를 맞이해 본다. 그리고 마무리도. 다시 센터로 돌아가면 더욱더 신나게 보낼수 있도록 힘내자!

- by 김창숙 -



도나의 12월 소감

벌써 12월이 지나고 2013년이 되어서 동티모르에서 마지막 1달이 남았네요.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마지막까지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팀들도 화이팅!!!!

-by 박다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쉬고, 헤어짐을 생각하고...

12월은 지난 세 달 동안 여기저기 많이 못 간 한(恨)을 풀려는 듯이 센터를 떠나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비자트립으로 발리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 로스팔로스(Los Palos)를 갔어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센터 축구부의 경기가 있는 에르메라(Ermera)에도 갔어요. 특히 로스팔로스를 다녀오고 나서는 감기도 걸리고 입주변이 부르트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지요. 그리고 12월 22일부터는 1월 초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달은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센터에 많이 집중을 못했어요. 그나마 센터에 가는 날마저도 제가 잘 집중을 못했지요.



이번 달의 가장 큰 센터 행사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이었어요. 근처 성당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라온아띠는 스텝 분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스텝 분들과 '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공연을 통해서 센터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센터'라는 말에는 물론 라온아띠와 스텝 개개인의 능력, 그 사람들을 이끄는 총장님의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느꼈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떤 역량들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공연이 마련해주었어요. 그동안은 알 수 없었던, 어쩌면 제가 둔해서 느끼지 못했을 그런 역량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고 팀원들과의 생활에서는 이전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항상 서로 좋은 말만 주고 받을 수는 없음을 계속 깨달았어요. 불편함, 꼭 해야 할 말은 반드시 얘기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게 제게는 참 힘들었고,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이걸 앞으로도 라온아띠가 끝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요.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장장 2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쉬면서 혼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센터를 안 나가니까 점점 한국생각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등등.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사람들과 헤어짐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절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가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라온아띠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가 빠지고 새로운 라온아띠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요. 또 지금까지 사람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도움을 주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구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잘 헤어지는 길을 좀 열심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티모르 사진관





















